

중소기업 현장점검 인사 말씀 요지

-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.
-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점검에 참석해주신 중소기업 실무자 여러분 및 신보·기보 실무자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

< 추진배경 >

- (그간 성과) 「금융개혁 현장점검반」은 지난 '15.3.26일에 출범하여 9월말까지 227개 금융회사를 방문

* 약 2,8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받아 회신대상 1,751건 전부 회신을 완료

- 특히 그간 금융개혁과 차별화하여 Bottom-up 방식으로
-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
- 그 결과 현장과의 직접 소통 및 금융당국의 신뢰회복이라는 목표에 한발자국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함

- (대상 확대) 하지만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이용자 및 소비자들의 만족과 그들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이라고 생각함

- 이를 위해 지금부터는 현장점검 대상을 「금융회사 → 금융이용자·소비자」로 확대·발전시켜 나갈 예정

- (점검계획) 이달 중에는 최초로 중소·벤처기업, 상장기업 또는 상장준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

- 금융이용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간의 현장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유관기관* 실무자도 금번 현장점검에 참여

* 중소·벤처기업 현장점검(신보·기보·IBK·산은 참여)

상장 또는 상장준비기업 현장점검(거래소, 예탁원, 증권금융, 코스콤 참여)

- (점검방식) 금융이용자들의 실질적 요구를 듣기 위해 중소기업 CEO보다는 실무 자금부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

- 이들이 조직화하기 어렵고 건의사항도 체계적으로 정리된 제도개선사항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,

- ① 건의사항을 금융회사 관행개선 측면에서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시 주요 착안사항 등으로 반영하고,

- ② 협회·현장점검반은 이를 제도개선 안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노력하는 등 2가지 접근방법을 취할 예정

- ⇒ 금융으로 해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금융회사들이 금융개혁에 책임성을 갖고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

□ (감독 방향)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현장점검반에 새로운 미션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의 방향도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기 위함임

- 기존에는 금융이용자·소비자들과는 유리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·감독이 일반적
- 향후에는 현장점검반이 금융이용자·소비자들에게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 현장점검이 금융회사에 대한 일종의 CCTV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

① 그결과 금융회사가 서비스 제공자로서 제역할을 못하거나

② 금융이용자·소비자들에게 소위 '갑질'을 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"현장경보"를 발령하고 집중 검사·감독할 것임

⇒ 금융 보신주의 타파 등을 위해 이러한 분야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정밀 타격해가는 검사·감독에 집중해 나갈 것임

< 향후 계획 >

□ 금융소비자에 대하여도 금년 11월 중 현장점검 실시

- 또한 금융이용자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현장점검은 향후에도 매월별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
-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및 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「현장점검체계」 마련에 노력해 나갈 계획

< 당부사항 · 맺음말 >

□ 오늘은 제가 「금융개혁 현장점검반」의 1일 반원으로서 중소기업 실무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리

○ 기탄 없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당국이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건의하기 바람

○ 오늘 현장에서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, 제가 직접 필요사항을 챙기겠음

⇒ 여러분의 의견과 건의는 금융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는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것

□ 감사합니다.

※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